II-6. 보철수복을 위한 외상치아의 치주수술 증례

배준철, 김원경, 이영규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치과 치주과

연구배경

외상으로 인한 치관파절의 경우, 통상 외과적인 임상 치관 연장술이나 강제 맹출술을 시행한 후 보철수복을 하게 된다. 외과적인 임상 치관 연장술은 골삭제를 동반하여 치은의 근단측 이동을 초래, 인접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비심미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. 강제 맹출술은 치조골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나 교정장치를 부착해야 되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.

외상을 당한 치아의 파절선이 치은연하에 위치할 때 골수준에서 tooth preparation을 시행하여 치주조직의 치유를 유도한 후, 보철수복을 시행하면 통상적인 치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.

본 증례에서는 전치부 외상치아에서 'Combined preparation' technique을 이용, 보철수복을 위한 전처치로서의 치주수술을 시행하였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치아외상을 주소로 서울아산병원 치과에 내원한 환자 중 치은연하 파절선의 치아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판막 박리 후 골수준에서 tooth preparation을 시행하였다.

연구결과

'Combined preparation' technique을 이용하여 외상을 당한 치아의 치주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치주조직의 치유 중 임시 보철물을 수복하였다.

결론

외상에 의한 파절치아의 치료로, 외과적인 임상 치관 연장술보다 'Combined preparation' technique을 이용함으로써 골삭제량이 줄어들고 좀더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